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2016.12.27.(화) 15:00 이후	배포	2016.12.27.(화)	
책 임 자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안 창 국(02-2100-2860)	담 당 자	오 형 록 사무관(2864) 박 보 란 사무관(2865)		

제 목 : 금융위원장, 기술기업 현장방문 및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

- 금융위원회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**중소기업 유동성 지원**을 위한 **특별 프로그램**을 **가동**하고 **기술금융 공급**을 대폭 확대할 계획
 - 중소기업에 대한 **시장 안전판** 역할 강화를 위해 「**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**」 신설·가동
 - **기술금융**을 통한 **대출·투자를 크게 확대 (+13.4조원)**
- * 대출 : 67조원(계획) → 80조원(목표), 투자 : 0.6조원(계획) → 1조원(목표)

-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'16.12.27(화) 핵심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인 “기술금융 활성화”와 “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”를 위해,
- 기술금융 이용기업인 ‘(주)현진제업’을 방문하고 반월공단 소재 중소기업과 현장간담회를 개최

【현장방문 행사 개요 : '16.12.27.(화) 15:00~17:00】

① 기술기업 방문

- (주요 참석자) 금융위원장, 기업은행 부행장 등
- (주요 내용) 기술금융 이용기업 ‘(주)현진제업’ 현장방문 및 의견 청취

②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

- (주요 참석자) 금융위원장,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 이사장·기업은행 부행장
- (주요 내용) 반월 소재 중소기업 금융애로 및 '17년 중기금융 지원계획 등

< 기술기업 방문 >

- 금융위원장은 기술기업 방문을 통해,
- “(주)현진제업으로부터 해외진출을 위한 **현지공장 신축**을 추진 하였지만, **대출한도가 부족**하여 **자금 조달**에 어려움을 겪었으나,
- 기술평가 결과, 기술등급 T4로 우수한 기술력을 확인하고 필요 자금 145억원을 지원받아 해외진출에 성공했다는 설명을 들음
-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**기술금융 효과**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기술력에 따라 금리·대출한도 등에 우대가 나타날 수 있게 **기술 금융 효과성**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,
- 기술금융이 **대출·투자 의사결정의 핵심시스템**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

<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>

- 금융위원장은 기술기업 방문에 이어 반월공단 소재 중소기업과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
- ① (중소기업) 과거 **유동성 위기**를 겪었으나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정상화된 기업과 **기술금융 이용기업**이 참여한 간담회에서,
-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근 경제여건과 금리인상 가능성이 어려워질 상황에 대비하여 **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**와 **일시 유동성 극복**을 위한 **지원 정책**이 절실하다고 건의
- 특히, **기술금융**은 일반 중기대출과 비교하여 금리·한도 등에서 **유리한 측면**이 있고, 기술금융이 금융기관의 **담보·보증** 등의 **보수적 금융관행**을 개선하고 있지만, 아직은 부족한 상황으로
- 기술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기술금융보다 **기술력이 더욱 많이 반영**되어 **대출여부** 및 **대출 조건** 등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

② (정책금융기관) 정책금융기관(산·기은, 신·기보)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자금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

- i)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당초 121조원에서 128조원 규모로 7조원을 확대 공급하는 등,
 - ii)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당초 계획한 19조원에서 2조원을 확대하여 총 21조원을 공급하여,
 - iii) 정책금융기관의 '17년 중소기업 지원규모를 당초 141조원에서 약 9조원이 늘어난 15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
- 아울러, 지원 규모 증가에 맞추어 '금융현장지원단' 활동을 금융회사에서 중소·중견·지역 기업으로 확대하여
 - 중소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

③ (은행권) 은행권도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자금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,

- 자체 기술금융 실시를 통해 1.5조원*의 기술금융 대출 공급하는 등 기술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

* '16년 하반기 예상 기술금융 대출 약 10조원 중 15% 수준이 TCB가 아닌 자체 기술금융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예상

- 이에 금융위원장은 금리상승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「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」을 신설하고, 기술금융 지원도 큰 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

- (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)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만기연장, 신규자금지원 등 선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,

- Fast-Track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「중소기업 신속금융 지원 프로그램」을 마련하여 가동할 계획

* ① 지원기간 : (현행) 한시적 운용 → (개선) 5년간 상설화,
② 자금지원 : (현행) 신규자금 보증비율 40% → (개선) 보증비율 60~70%로 확대
③ 참여기관 확대 : (현행) 신·기보, 은행권 → (개선) 무보·중진공 참여

※ 주요 내용은 별도 배포하는 보도 참고자료 참조

- (기술금융 공급) 일반 중기대출 대비 금리·한도 등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술금융이 기술력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,
- '17년 기술금융 대출 공급규모를 당초 계획한 67조원에서 80조원으로 큰 폭으로 확대하고,
- '17년 기술금융 투자도 당초 0.6조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여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,
- 중장기적으로는 2019년까지 100조원 공급이 목표였던 기술금융 대출은 130조원으로, 기술금융 투자는 1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
- (기술금융 비전) 기술금융의 자금공급 확대 노력과 함께 “기술만 있으면 대출이 되도록” 은행 여신심사시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비전을 수립하고
- 기술금융이 은행 여신시스템에 착실히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

- 금융위원회는 금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애로사항을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,

-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기관과 은행권 등 민간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언급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 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